

5 장.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다

박소영

주제 - 예수의 잉태 이야기가 다른 신적 잉태이야기들과 차별화하여 마리아의 **처녀성**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물학적 진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, 예수가 그 누구보다도 인류에게 초월적이고 비범한 유익을 준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주장하는 **은유(비유)**이다.

문제점

1. 예수의 잉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. (요셉/마리아, 모세/세례요한)
2. 예수의 잉태 이야기는 다른 신적 탄생이야기들(불임, 고령, 신과의 육체적 관계)과 달리 모친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한다.
3. 예수의 잉태 이야기를 역사적, 문자적 사실로 읽을 것인가? 의미 전달을 위한 비유, 은유로 볼 것인가?

논점

1.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일

- 마태의 예수 잉태 이야기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1 세기 미드라쉬에 있는 모세의 잉태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.
- 마리아의 간음을 의심하게 하는 이야기는 파혼, 계시, 재결합이라는 미드라쉬의 모세 잉태 이야기의 구성을 따르기 위해, 파혼을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.

2.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.

- 마태 복음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처녀 잉태가 필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의 창작일 것이다.
- 누가 복음은 세례요한(고령의 불임 어머니)과 예수를 병행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차별화하여(마리아의 처녀성)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분(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)임을 강조한다.

3. 유대교 전통에서 신적인 잉태

- 유대교 성서 전통에서 신적인 잉태는 고령/불임인 부모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임신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(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 잉태, 엘가나와 한나의 사무엘 잉태), 세례 요한의 잉태 이야기의 모델이 되었다.
- 누가가 예수의 잉태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면서도 고령/ 불임이 아닌, 처녀 잉태로 만든 것은 의도적으로 신약 성서를 구약성서보다 높이고, 예수를 세례 요한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것이다.

4. 로마 전통에서의 신적인 잉태

- 그리스-로마 전통에서 신적인 잉태는 신이 인간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 이루어진다(아우구스투스 황제)
- 마태와 누가 이전의 초기 기독교가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한 것은 예수의 잉태를 더 기적적인 것으로 만들어, 예수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보다 더 높은 자라는 그들의 신학을 반영한 것이다.

5. 계몽주의 이전의 세계에서

- 고대세계, 계몽주의 이전의 세계에서는 인간과 신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믿었다.
- 신적인 잉태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고, 그 아기가 인류에게 비범하고 초월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들의 신학적 고백, 주장을 담은 은유, 비유이다.

평가

- 성서(예수 이야기)를 문자적, 사실적으로만 보지 않고, 의미 전달을 위한 비유와 은유로 볼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줌
- 마태에 있고 누가에 없는 것은 초기 전승에 없는 마태의 창작이라고 입증할 수 있나?

생각해 보기

1. 우리는 예수를 다른 종교적 인물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나?
2. 예수를 높이고자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?(큰 교회, 다른 종교 비방)
3. 예수에게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엇일까?